

水産高等學校 活性化方案 模索을 위한 漁村住民의 意識分析*

李 瓊 垞

(釜山水産大學校)

I. 研究目的 및 必要性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어촌 지역 水産系高等學校의 活性化方案을 모색하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漁民들과 어업 관련 公職者 및 水産高等學校 교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여론을 수집 분석하고 정리하여, 水産高等學校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여 이 연구가 의도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왜 이러한 경로를 거쳐야만 하는가의 문제는 각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본 연구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이 水産高等學校 활성화의 저변에 깔려있는 누적된 장애 요인이 무엇인가를 탐색하지 않고는 해결의 단서를 얻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일차 산업의 쇠퇴기에 놓여있는 현 시점에서 일차 산업 관련 교육의 활성화 방안이란 국민의 생활 의식과 교육 그리고 생애 문제와 상호 밀착된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체험과 경험을 통하여 느낀 문제점을 발견함이 없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1988년도 文教統計年報에 나타난 전국 實業高等學校 총수는 631개교이며, 이들 중 학교별 비율을 살펴보면 農業高等學校가 9.66%, 工業高等學校가 16%, 商業高等學校가 35.49%, 기타가 37.43%, 水産·海運系高等學校가 1.42%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25,962km의 해안선, 30kh의 대륙붕, 3,444개의 도서를 가진 水産立

國의 天惠의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水産教育이 침체되어 있다. 전국 人文系高等學校 956개교 중 水産業을 선택 과목으로 택한 학교는 1개교(전남 원도 소안고) 뿐이며 중학교의 경우 전국 2,404개교 중 실업 과목으로 水産一般을 택한 수는 불과 24개교(강원 2, 충남1, 경북4, 경남4, 전북1, 전남10, 제주2)에 지나지 않는다. 지형적으로 보아 전국에서 가장 긴 해안선과 가장 많은 도서를 가진 전남의 경우 選擇可能校數는 38%임에도 불구하고 겨우 3.8%만이 水産一般을 택함으로써 水産高等學校로의 진학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水産高等學校의 활성화 방안은 어느 특정인의 구상이나 압력 단체 또는 국가의 획일적인 시책만으로 해결하기란 더욱 어렵기 때문에 漁業關聯住民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본 研究의 필수 조건으로 요구되며, 그러한 요구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實業高等學校의 활성화 방안에 적극 투입하여 영역별 문제 해결의 합리성을 기대해야 한다.

교육 시책에 따르면 91학년도부터 고등학교 교육의 획기적인 개선책의 일환으로 점진적으로 人文高等學校와 實業高等學校의 비율을 50:50으로 조정함과 동시에 實業高等學校 활성화를 위해 인문계 고등학교 직업반 편성, 실업계 고등학교의 대폭적인 확충, 인문계 고등학교 지망자를 억제하여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 희망자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러한 계획을 강력히 추진할 일차적인 단계로 非平準化 지역에 實業高等學校 학생들의 보강책을 우선 추진하고 취업 지도를 강화하는 시책이 실현될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본 연구가 성공적으로 달성될 경우 실업계 고등학교의 활성화 방안

* 이 논문은 1990년도 교육부 지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방대학 육성 학술 연구 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에 유익한 자료가 될 뿐 아니라 교육 시책에 부응할 수 있는 시기 적절한 것이 되리라 예견된다.

II. 國內外的 研究動向

(1) 國內의 研究動向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산업사회로 변천하게 되자 농어촌의 젊은 인력이 대거 도시로 진출하여 農·漁業을 後繼할 인력 부족 사태가 야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이 1980년대에 와서 더욱 가속화 되어 農·漁業의 외부 인사들까지도 農·漁業後繼者 育成問題의 심각성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1980년에 農業教育學會가 營農後繼者 육성 세미나를 교육적 측면에서 개최한 결과 많은 학자들이 그 필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農民後繼者 육성의 심각성과 마찬가지로 漁民後繼者 육성 문제도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漁民後繼者 육성책에 관한 논문이 계속 발표되었다.

- 1) 국립수산진흥원, 어민후계자 사업포준설계, 1981년
 - 2) 고관서, 어민후계자 육성사업, 1981년
 - 3) 공용식, 영어후계자 육성총론, 1984년
 - 4) 이강우, 우리나라 어촌의 복지에 관한 연구
 - 5) 최정윤,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 1986년
 - 6) 최정윤,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 과제와 방향, 1986년
 - 7) 최정윤, 제2단계 어민후계자 육성사업에 관한 발전방향, 1987
 - 8) 이현우, 이경준, 수산고교생의 의식 구조 분석, 1988
 - 9) 이현우, 이경준, 후계어민 육성을 위한 어촌지역 중등교육과 사회교육의 연계방안, 1988
- 이상과 같은 연구 이외에도 어업 관련 기관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연구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本 研究가 달성하고자 하는 주요 목표는 漁村發展에 두고 있으며, 그것을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바로 水產高等學校의 활성화라 할 수 있다.

水產教育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촌 주민들의 水產業에 관한 의식을 규명하지 않고는 확실한 水產教育의 방향과 계획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 과

제는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함을 예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최근 教育部가 實業系高等學校의 획기적인 改善策과 獎勵策을 강구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는 국가 시책에 부응할 수 있는 주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추론되기 때문이다.

(2) 外國의 研究動向

1) 美國의 경우

美國은 農·漁民後繼者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국가에서 최저리 용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大學과 州政府과 農務省이 농촌 개발 기술 보급을 협동 사업의 일환으로 강력히 추진한 역사가 있다.

2) 日本의 경우

日本은 農·漁業後繼人力 확보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된 것은 1950년대 중반부터이다. 日本의 農·漁民後繼者 육성 문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고도 경제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농어촌의 제 조건 변화에서 기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日本의 農·漁民後繼者 육성 활동은 農水產省 산하의 農業者大學校 및 農業改良補給所 활동에 의한 육성, 그리고 각 도, 부, 현의 독자적인 활동에 의한 육성으로 나누어 지고 있다고 한다.

특히 日本의 경우 農業靑少年研修教育은 개인의 성장 단계에 따른 교육 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는 것이 특징인데, 그 단계별 활동을 보면 다음과 같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기금 사업의 진단과 개선 방향, 1983)

제1단계는 初·中等學校 학생들로 하여금 農·水產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근로 체험 학습, 선진 농업 경영 견학 등을 행하고 있다.

제2단계는 中·高等學校 졸업 후 취업 희망자들의 농업 기술 습득과 신장을 위한 연수 단계로서 農林水產 및 縣 農業者大學校, 日本農業實踐大學校, 이연학원, 통신 강좌 재연수, 단기 선진 농가 유학 연수, 등을 통하여 고도의 농업 이론과 실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제3단계는 海外農業研修教育으로서 고졸, 농업자대 학교졸, 단대졸, 대졸을 대상으로 해외 선진 국가의 기술 경영의 습득과 농업의 국제적 시야 확대를 위한 海外研修를 실시하고 있다.

제4단계는 이상과 병행한 在村靑少年의 집단 활동 육성과 각 지역별 연수 교육으로서 청소년 집단 활동의 상호 교류확대, 자주적 농업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이

수 및 학습 활동의 실시를 위하여 보급소, 縣, 국가의 각 측면에서의 지원이 행해지고 있고, 각 縣마다 부락 지도자로서 농촌 사회 개발을 주도할 중핵적 農民後繼者의 육성을 위하여 독자적이고 체계적인 연수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이 밖에 농촌 청소년의 信念을 고무하고 自主的 農業活動을 조장하기 위하여 우수한 농촌 청소년에게 青年農業士의 자격을 인정하여 앞으로 농촌 청소년을 육성 지도할 指導農學士로 육성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日本의 農民後繼者 육성체제와 사업의 개요를 간략히 종합·정리할 수 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 기금 사업의 진단과 개선방향, 한국 농업 교육학회, 1983, pp 31~32)

III. 研究內容 및 方法

(1) 研究內容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내용을 설정하고 각 영역에 따라 職業別, 地域別 問題點을 가려내어 改善策을 강구하며, 본 연구 목적에서의 도한 水產高等學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가. 水產業에 대한 어촌 주민들의 態度(직업적 가치관)

나. 水產高等學校 進學의 障礙要因과 進路問題

다. 水產高等學校 教育內容(교육과정 개선문제)

라. 水產高等學校의 行政問題

마. 漁村地域의 水產技術 教育問題

바. 水產業의 弘報問題

이상의 研究領域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강구하였다.

(2) 研究方法

이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가. 輿論調查

첫째, 우리나라 水產高等學校가 설치되어 있는 전지역을 방문하여 각계 각층의 주민 및 어업 관련 공직자들과 면담 실시

둘째, 각 水產高等學校 교사들과 연계하여 면담 및 설문 조사 협조 의뢰

셋째, 면담에서 도출된 의견을 수렴하여 교사들과 설

문 작성에 필요한 요지를 채택하기 위한 세미나 개최
나. 設問作成 및 調査

1차 세미나에서 거론된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 영역별로 설문지 문항을 작성한다. 작성된 설문을 각 지역 교사들과 협력하여 조사 실시 및 수합하여 불실한 설문지를 제거하였다. 이때 조사 대상은 無作為表集하였으며 조사 예상 인원을 2000명으로 하였다.

(3) 統計處理

조사된 설문 통계 처리는 사이버 컴퓨터로 하며 백분율로 환산하고 χ^2 로 差의 검증을 한다. 差의 검정을 하는 이유는 조사 결과에서 파생되는 오류를 최소화 하고 妥當性과 信賴性을 높이기 위함이다.

調査對象地域 및 協調者

조사 대상 지역 및 학교	협 조 자
1) 주문진 지역 및 주문진 수산고등학교	주문진수산고등학교 교사
2) 완도 지역 및 완도 수산고등학교	완도수산고등학교 교사
3) 남해 지역 및 남해 수산고등학교	남해수산고등학교 교사
4) 전남 지역 3개 도서 중 고등학교	각 지역 중고등학교 교사
5) 포항 지역 및 포항 수산고등학교	포항수산고등학교 교사
6) 경기 지역 및 인천 수산고등학교	인천수산고등학교 교사
7) 울릉 지역 및 울릉 종합고등학교	울릉종합고등학교 교사
8) 경남 지역 및 거제 수산고등학교	거제수산고등학교 교사

IV. 結果解析 및 論議

설문지 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를 水產高等學校의 活性化方案 모색의 차원에서 분석하고 검토하고자 하였다.

1. 進學 및 進路問題

우리나라는 産業社會化 됨에 따라 水產高等學校의 進學希望者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며, 중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水產高等學校 진학을 기피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또 水

高生들과 어민들은 水高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규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알아 보고자 하였다.

(1) 水高進學의 障礙要因

水產高等學校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障礙要因이 무엇인가를 알아 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에 의하면 水高志望을 기피하는 가장 큰 요인은 지역 주민들의 水產業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고 반응하였다. 총 반응자 1877명 중 33.8%가 수산업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고 응답하여 전체 요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은 水產業의 賤視風潮가 15.5%, 大學進學 문제가 14.7%의 순으로 나타났다. 드러난 결과에 따라 분석해 볼 때 水產業에 대한 국민의 인식 부족이 자녀들의 水高進學을 선호하지 않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水產業의 賤視風潮나 혹은 水高生들의 大學進學에 지장이 있다는 등의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비추어 볼 때 水高進學의 選好度を 높이려면 水產業에 대한 職業的 價値를 높일 수

있는 국민의 인식을 회복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水高志望選好度の 高揚條件

水產高等學校에의 進學選好度を 높이려면 어떤 조건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설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 의하면 고교 진학에 있어서 水高의 選好度を 높이는 가장 큰 조건은 水高卒業 후의 취업 보장이라고 반응하였으며, 총 반응자 1880명 중 32.4%이었다.

다음으로 높은 반응은 同一系大學進學(18.6%), 학비 전액 면제(17.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적으로 해석해 볼 때 水產高等學校 進學의 選好度を 높이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는 취업 보장이 있어야 하며, 취업 보장에 있어서도 타 직종이 보장받는 만큼의 수준이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水高生들의 同一系大學에 진학할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하며, 어촌의 경제 문제를 감안할

<표 1> 水產高等學校 진학 장애 요인별 반응률

항 목 대 상	수산업의 인식부족	성적불량	경제적 빈곤	취업곤란	부모만류	수산업 천시사상	대학진학 곤란	기 타	직업별 참여율 (인원 수)
어 민	33.8	4.2	8.2	15.1	7.9	15.4	13.9	1.5	17.6 (331)
지 도 소	30.9	1.8	4.5	31.8	2.7	19.1	7.3	1.8	5.9 (110)
교 사	30.6	11.1	4.8	4.5	5.7	26.4	14.6	2.2	16.7 (314)
수 협	35.4	3.7	8.5	18.0	.5	16.9	16.4	.5	10.1 (189)
학 생	34.9	14.1	9.9	4.5	8.7	11.0	15.4	1.4	49.7 (933)
요 인 별 반 응 률	33.8	10.1	8.3	9.3	6.9	15.5	14.7	1.5	100.0(1877)

$\chi^2=113.4$ $df=28$ $P<.001$

<표 2> 水產高等學校 지망 선호도 고양 조건

항 목 대 상	학비전액 감면	기숙사 무료제공	병역특혜	실험시설 대폭확충	취업보장	영어자금 지원	동일계 대학진학 특혜	기 타	직업별 참여율 (인원 수)
어 민	18.2	5.8	11.2	6.4	32.7	9.1	16.4	.3	17.67 (330)
지 도 소	7.3	.9	11.9	9.1	52.3	7.3	8.3	2.8	5.8 (109)
교 사	19.4	12.1	16.6	1.9	22.0	8.6	17.2	2.2	16.7 (314)
수 협	10.9	1.6	4.7	10.4	52.1	2.1	17.7	.5	10.2 (192)
학 생	19.7	6.7	10.9	7.1	29.4	3.9	21.2	1.2	49.7 (935)
요 인 별 반 응 률	17.8	6.6	11.3	6.5	32.4	5.6	18.6	1.2	100.0(1880)

$\chi^2=163.5$ $df=28$ $P<.001$

때 水高志望生들에게는 장학 혜택의 폭이 넓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水高志望動機

현재 水高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水高志望動機가 무엇이었던가를 알아 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의 결과에 의하면 水高志望動機가 된 가장 큰 요인은 水産業의 전망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총 응답자 937명 중 28.1%가 水産業의 전망 때문이라고 하여 전체 요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은 성적이 좋지 않아서가 24.9%, 가정 경제가 어려워서가 17.2%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기할 것은 남녀 학생의 반응 가운데, 남학생의 경우 水産業의 전망을 가장 높이 평가한 데 비하여 여학생은 가정 경제의 어려움을 들고 있었다.

나타난 결과를 종합적으로 해석해 볼 때 현재 水高生들이 水高에 입학하게 된 동기는 수산업의 未來展望에 두고 있음이 밝혀졌으며, 이들의 水産業 미래관은 매우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와 사회는 이들의 未來展望의 실현을 위해 水産業에 대한 적극적인 배

려가 따라야 할 것이다.

(4) 水高生들의 自負心

현재 수고생들이 느끼는 수고생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알아 본 결과는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표 4>에 의하면 水高生들이 갖는 자부심과 긍지의 정도는 “가치 중립적인 면”(보통)을 제외하면 높은 쪽으로 나타났다. 총 반응자 938명 중 39.4%는 높은 긍지를 갖고 있다에 반응한 반면 15.4%는 “낮은 긍지”에 반응하였다.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높은 긍지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적으로 해석해 볼 때 현재 재학 중인 水高生들은 자신들의 水高生임을 자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卒業後 希望進路

현 水高生들에게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한 희망을 알아 본 결과는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표 5>에 의하면 현재 水高生들의 졸업 후 진로 선택에 있어서는 水産系就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총

<표 3> 水產高等學校 지망 동기

요인별 직업별	부모어 업종사	어 민 회 망	수산업 전 망	수입이 좋아서	경 제 발 전	교사의 권 유	성적이 나빠서	경제적 빈 곤	수산계 대 학 진 학	기 타	남녀별 참여율 (인 원 수)
남학생	2.6	2.0	28.1	8.9	3.4	5.6	25.0	16.7	5.6	2.1	97.2(911)
여학생	0	0	26.9	0	3.8	7.7	19.2	34.6	0	7.7	2.8(26)
요인별 반응률	2.6	1.9	28.1	8.6	3.4	5.7	24.9	17.2	5.4	2.2	100.0(937)

$\chi^2=13.8$ $df=9$ $P<.5$

<표 4> 自부심 정도

요인별 성 별	매우 높음	약간 높음	보 통	약간 낮음	매우 낮음	성별 참여율
남 학생	19.8	19.7	44.6	9.8	6.0	97.2(912)
여 학생	7.7	26.9	65.4	0	0	2.8(26)
요인별 반응률	19.5	19.9	45.2	9.5	5.9	100.0(938)

$\chi^2=9.1$ $df=4$ $P<.05$

<표 5> 희망 대학 선택

요인별 성 별	수산계직업 선택	수산계대학 진학	비수산계대학 진학	수산계 전문 대학 진학	성별 참여율 (인 원 수)
남 학생	55.6	25.2	13.3	5.9	97.2(903)
여 학생	50.0	11.5	34.6	3.8	2.8(26)
요인별 반응률	55.4	24.9	13.9	5.8	100.0(929)

$\chi^2=10.5$ $df=3$ $P<.05$

<표 6>

비 수산계 진출 이유

요인별 성 별	적성에 맞지 않다	수산업의 장래성불투명	수산업에 대한관심이없어	도시생활이 하고싶어서	기 타	성별 참여율
남 학생	46.8	8.1	10.4	23.1	11.6	94.5(173)
여 학생	60.0	10.0	20.0	10.0	0	5.5(10)
요인별 반응률	47.5	8.2	10.9	22.4	10.9	100.0(183)

$\chi^2=3.0$ $df=4$ $P>.05$

반응자 929명 중 55.4%가 水産系職業 선택을 희망하여 전체 요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은 水産系大學 진학이 24.9% 非水産系大學 진학이 13.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취업 희망과 大學進學 희망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반응을 고려할 때 진로 지도를 위한 특별 교사가 학생 진로에 적극적인 노력과 배려가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6) 非水産系就業과 進學을 希望하는 理由

非水産系 취업과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에 대하여 그 이유를 알아 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 의하면 非水産系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에 한하여 가장 큰 요인은 적성에 맞지 않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반응자 183명 중 47.5%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非水産系로 진출하겠다는 반응을 하였다. 다음으로 높은 반응은 “도시 생활 선호”때문이 22.4%, 水産業에 대한 무관심이 10.9%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볼 때 非水産系로 진출하겠다는 학생들은 水高志望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었다는 것과, 개인의 적성과 水産業은 서로 맞지 않으나 억지로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2. 學校行政과 教育行政

학교 행정 책임자의 역량은 학교 발전과 교육 발전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발전에도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특히 학교의 특성과 지역 사회의 여건에 따라 교육 과정 운영에도 상당한 관계가 있겠으나 학교 행정 책임자의 전문성에 따라 교육 방침에도 변화가 따른다고 볼 때 임해 및 島嶼地域 教育責任者는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水産業專攻者가 마땅히 배치되어야 유익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1) 臨海 및 島嶼地域의 學校責任者

지역적 여건을 고려할 때 임해 및 도서 지역 중등학교 교장과 교감 선생님은 水産業을 전공한 사람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반응의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임해 및 도서지역 중·고교장의 수산업 전공자 임명

요인별 직업별	찬 성 함	반 대 함	기 타	직업별 참여율
어 민	87.3	8.2	4.5	18.2 (331)
지도소	86.1	7.4	6.5	5.9 (108)
교 사	76.5	14.6	8.9	16.6 (302)
수 협	87.0	6.5	6.5	10.1 (184)
학 생	80.3	13.7	6.0	49.3 (898)
요인별 반응율	82.0	11.7	6.3	100 (1823)

$\chi^2=23.07$ $df=8$ $P<.001$

<표 7>에 의하면 임해 및 도서 지역 중등학교 행정 책임자를 水産業 전공자로 배치하는 문제는 “찬성”한다가 압도적으로 높은 반응을 하였다. 총 반응자 1823명 중 82.0%가 찬성에, 그와 반면에 “반대”한다에는 불과 11.7%였다.

직업별 찬성률이 낮은 집단은 교사 반응으로 76.5%였으며 그 외의 집단은 모두 80% 수준을 상회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적으로 해석해 볼 때 임해 및 도서 지역 중등학교 행정 책임자는 水産業 전공자가 되어야 함을 어촌 주민들은 적극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 臨海 및 島嶼地域中學校 實業科目選擇問題

임해 및 도서 지역이라는 지역적 여건을 고려할 때 중학교의 實業敎科目 선택은 어떤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반응 결과는 <표 8>과 같이 나타났다.

<표 8> 중학교(임해 및 도서지역)에서의 실업과목 선택 희망 분포

성별 \ 요인별	수 산업	농업	공업	상업	직업별 참여율 (인원 수)
어민	71.3	5.2	14.7	8.9	17.5(327)
지도소	91.8	0	2.7	5.5	5.9(110)
교사	90.4	2.9	4.1	2.5	16.8(314)
수협	73.3	5.3	8.6	12.8	10.0(187)
학생	61.2	7.3	17.5	14.0	49.7(928)
요인별 반응률	70.9	5.6	13.0	10.6	100.0(1866)

$\chi^2=131.4$ $df=12$ $P<.001$

<표 8>의 반응에 의하면 임해 및 도서 지역 중학교의 實科選擇 과목으로는 水産業이 바람직하다고 반응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총 응답자 1866명 중 70.9%가 水産業選擇이라고 응답하여 전체 요인 중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높은 반응률은 工業이 13.0%, 商業이 10.6%의 이었다. 직업별 반응으로는 어촌 지도소와 교사 집단이 90% 수준에서 水産業 실과 선택을 찬성하였다.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임해 및 도서 지역의 中學校 實科選擇은 水産業으로 하는 것이 매우 유익함을 입증해 주고 있다.

(3) 專門敎科目的 難解性

현재 水産高等學校에서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전문 교과목의 내용이 그들 학생에게 어느 정도 어렵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반응의 결과는 <표 9>와 같이 나타났다.

<표 9>에 의하면 水高生들이 배우고 있는 전문교과목의 내용은 학생들의 수준에 비해 어렵다는 반응률이 높게 나타났다.

“보통”이라고 반응한 價値中立性을 제외하면 “어렵다”는 반응이 43.3%, “쉽다”는 반응은 불과 6.0%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반응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水産高等學校에서 배우고 있는 전문 교과목은 학생들의 수준에 비해 내용이 어렵게 짜여져 있음을 알 수 있다.

(4) 專門敎科目的 難解理由

전문 교과목이 어렵다고 반응한 학생들에 한해서 그 이유를 알아 본 결과는 <표 10>과 같이 나타났다.

<표 9> 전문 과목 난이도

성별 \ 요인별	매우 어렵다	약간 어렵다	보통	약간 쉽다	매우 쉽다	직업별 참여율 (인원 수)
어민	7.8	27.5	54.6	10.2	0	34.1(295)
지도소	33.9	60.6	5.5	0	0	12.6(109)
교사	70.0	35.4	61.4	2.5	0	32.9(285)
수협	3.4	33.0	55.1	8.5	0	20.3(176)
요인별 반응율	7.9	35.4	50.8	6.0	0	100.0(861)

$\chi^2=217.1$ $df=9$ $P<.001$

<표 10> 전문 교과목이 난해한 이유

직업별 \ 요인별	기초학력부족	새로운용어 들이 많아서	학습의목부족	흥미가 없어서	적성에 맞지않다	기타	직업별 참여율 (인원 수)
어민	74.3	6.9	11.9	5.9	1.0	0	27.5(101)
지도소	86.3	6.9	6.9	0	0	0	27.8(102)
교사	47.1	25.5	7.8	15.7	1.0	2.9	27.8(102)
수협	62.9	9.7	4.8	22.6	0	0	16.9(62)
요인별 반응률	68.1	12.5	8.2	9.8	.5	.8	100 (367)

$\chi^2=69.2$ $df=15$ $P<.001$

<표 10>에 의하면 전문 교과목이 난해한 요인 중 “基礎學力不足”이라고 반응한 것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총 반응자 367명 중 68.1%가 기초 학력 부족에 응답하였으며, 다음은 새로운 용어들이 많아서가 12.5%, 흥미가 없어서가 9.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현재 水高生들의 대부분이 中學校에서 學業科目을 水産業이 아닌 다른 교과를 배웠다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하여 水産業에 대한 전문 교과목 자체에 기초 학력 부족 내지는 새로운 용어에 익숙하지 못하여 학습의 의욕이 저하됨을 알 수 있다.

(5) 專門敎科의 難解性에 대한 敎師·學生의 反應

현재 水高生들이 배우고 있는 敎科目內容이 어느 정도 난해한가를 교사와 학생의 양측을 대비해서 알아 본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에 의하면 양집단의 반응 중 “약간 어렵다”를 제외한 兩極을 대비하면 “이해한다”의 반응률보다 “매우 어렵거나” “거의 이해못함”이 월등하게 높은 응답을 하였다.

敎師集團이 판단하는 學生評價는 “이해한다”가 10.7%,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가 41.9%인 데 비해 “學生들 自信”이 판단하는 비율은 “이해한다”가 7.2%이고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가 53.3%로 나타나서, 敎師集團과 學生集團 쌍방이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이 자료는 原資料에서 나타난 결과만을 대비시킨 것임).

이상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水產高等學校에서 배우고 있는 專門敎科科目이 현 水高生들에게는 매우 난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외형적으로 나타난 결과가 시사하는 바로는 우선 水産業이 中學校에서 배우지 못한 생소한 과목이라는 입장과 또 한편으로 교과목 자체의 내용이 학생들의 수준에 비해서 어렵게 구성되어 있지 않나 하는 입장도 고려해 볼 수 있다.

(6) 人文敎科科目에 대한 難解度

현재 水高에서 배우고 있는 각종 人文敎科科目에 대한 水高生들의 이해도가 어떠한지를 알아 본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에 의하면 水高生들이 人文敎科科目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매우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총 반응자 932명 중 (보통 제외) 어렵다고 반응한 비율이 64.6%, 쉽다고 반응한 비율은 4.7%에 불과하였다.

이를 종합해 볼 때 현재 水高生들이 배우고 있는 人文敎科科目이 그들의 수준에서 매우 난해함을 알 수 있다.

<표 11> 교과목 난해도에 대한 교사·학생의 반응

요인별 구분	매우 잘 이해한다	잘 이해한다	약간 어렵다	매우 어렵다	거의 이해 못함	계
교사	1.1	9.6	48.0	34.9	7.0	100. (298)
학생	1.1	6.1	39.6	39.1	14.2	100. (937)

<표 11-1> 각 교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력은 어느 정도입니까?에 대한 교사의 반응

요인별 성별	매우 잘 이해한다	잘 이해한다	약간 어려움 을 느낀다	매우 어려움 을 느낀다	거 의 이해불가	성별참여율
남 교사	1.1	9.5	48.0	33.9	7.4	90.9(271)
여 교사	0	3.7	48.1	44.4	3.7	9.1(27)
요인별 반응률	1.1	9.1	48.0	34.9	7.0	100.0(298)

<표 11-2> 현재 배우고 있는 전문 교과목의 내용은 어느 정도 어렵습니까?에 대한 학생의 반응

요인별 성별	매우 어렵다	약간 어렵다	보통이다	약간 쉽다	매우 쉽다	성별참여율
남 학생	14.3	39.3	39.3	6.0	1.1	97.2(911)
여 학생	11.5	30.8	50.0	7.7	0	2.8(26)
요인별 반응률	14.2	39.1	39.6	6.1	1.1	100.0(937)

<표 12>

인문 교과목의 난해도

성별 \ 요인별	매우 어렵다	약간 어렵다	보통이다	약간 쉽다	매우 쉽다	성별참여율
남 학생	24.6	40.1	30.8	3.9	.8	97.3(907)
여 학생	32.0	20.0	44.0	4.0	0	2.7(25)
요인별 반응률	24.8	39.6	31.0	3.9	.8	100.0(932)

$\chi^2=4.6$ $df=4$ $P>.5$

<표 13>

교과목 수의 적정 여부

성별 \ 요인별	매우 많다	약간 많다	적당하다	약간 부족	매우 부족	성별참여율
남	4.1	28.8	52.4	14.2	.4	91.4(267)
여	0	36.0	44.0	20.0	0	8.8(25)
요인별 반응률	3.8	29.5	51.4	14.7	.3	100.0(292)

$\chi^2=2.4$ $df=4$ $P<.5$

(7) 水高生들의 專門敎科目數

현재 水高生들의 정규 수업에 활용되고 있는 專門分野의 敎科目數가 어떠한지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교사들의 반응은 <표 13>과 같다.

<표 13>에 의하면 현행 敎科目의 수가 적당하다는 반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총 반응자 292명 중 51.4%가 현행 專門分野의 과목 수가 적당하다고 반응하였다 그러나 33.3%는 많다는 쪽으로 응답하였으며, 15.0%는 부족한 쪽으로 응답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해석해 볼 때 현행 교과목 수가 적당하기는 하나 다소 학생들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8) 專門分野의 新設敎科目의 必要性

미래의 水産業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專門敎科目을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교사들의 반응은 <표 14>와 같이 나타났다.

<표 14>의 반응에 의하면 새로운 專門敎科目은 더 신설할 필요가 있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총 반응자 283명 중 새로운 專門敎科目을 더 신설해야 한다가 55.8%,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반응이 44.2%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현행의 敎科目數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표 13>을 참조할 때 신설의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보아진다.

(9) 新設敎科目의 類型

<표 14>에서 新設敎科目이 필요하다고 반응한 교사에게 한해서 新設敎科目의 유형을 알아 본 결과는 <표 15>와 같다.

<표 15>에 의하면 신설 교과목으로는 컴퓨터가 적당하다는 반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신설 교과목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총 185명 중 32.0

<표 14>

新設敎科目의 필요성

성별 \ 요인별	예	아니오	남여 참여율 (계)
남 교사	54.7	45.3	90.5(256)
여 교사	66.7	33.9	9.5(27)
요인별 반응률	55.8	44.2	100 (283)

$\chi^2=.98$ $df=1$ $P>.5$

<표 15>

신설 교과목의 유형

성별 \ 요인별	컴퓨터	어업경영	마케팅	수산양식	어류학	어병학	어로기능학	자원생물학	냉동	남·여참여율 (인원수)
남 교사	31.8	11.5	10.2	11.5	1.3	1.9	3.2	12.1	16.6	89.7(157)
여 교사	33.3	22.2	16.7	5.6	0	0	0	5.6	16.7	10.3(28)
요인별 반응률	32.0	12.6	10.9	10.9	1.1	1.7	2.9	11.4	16.6	100 (185)

$\chi^2=4.4$ $df=8$ $P>.5$

%가 컴퓨터라고 반응하여 전체 요인 중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여 해석해 볼 때 專門分野가 아니더라도 학생들에게는 未來社會에 활용해야 할 첨단 기술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3. 水産業에 대한 職業觀

많은 職種 가운데 水産業이 시민들이나 일반 國民들에게 어느 정도 가치롭게 수용되고 있는가에 따라 水産業의 미래 발전에 크게 변화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직업적 발달이란 개인의 생애 수단으로서 작용도 하겠지만 거시안적 전망에서 볼 때 國家經濟 성장과 국민 복지 향상에도 큰 몫이 되어야 할 것이다.

水産業 역시 타 직업의 발전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특히 水産業 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水產高等學生들은 그들이 배우고 있는 專門分野의 지식과 기술이 水産業 발전에 총력을 다 할 수 있도록 능력 신장이 따라야 할 것이며, 水産業을 그들의 생명처럼 귀중하게 느끼고 아낄 줄 아는 자세가 되어야 할 것이다.

漁民들은 水産業의 중요성을 항상 인식하면서 水産業 발전을 위한 많은 연구와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밝혀 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漁業觀을 고찰하고자 한다.

(1) 家族의 水産業에 대한 견해

水産業에 대한 직업적 가치를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분의 가족 중 한 사람이 水産業에 종사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는 물음에 대한 반응은 <표 16>과 같이 나타났다.

<표 16>에 의하면 家族構成員의 水産業 종사를 찬성하는 비율이 월등하게 높았다. 총 반응자 1853명 중 64.8%가 찬성하고, 35.2%가 반대한다고 하였다. 직업별로 볼 때 찬성률이 가장 높은 반응을 보인 것은 학생들이었으며, 그와 반대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 것은 어민들이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해석해 볼 때 水産業의 직업적 가치를 대부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水産業의 미래를 담당할 학생들의 반응률이 높은 것은 水産業의 미래를 밝게 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① 家族의 수산업에 대한 견해

위 문항에서 水産業 종사를 찬성한 사람에 한하여 그 찬성의 이유를 알아 본 결과는 <표 16-1>과 같다.

<표 16-1>에 의하면 家族構成員의 水産業 종사 찬성 이유를 水産業의 발전 가능성에 두고 있었다. 총 찬성자 1204명 중 53.7%가 水産業의 발전 가능성에 두고 있었으며, 18.7%는 漁村發展을 위해서 라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에 따르면 漁民들은 水産業의 현재 상

<표 16>

가족의 수산업관

요인별 성 별	어 민	지 도 소	교 사	수 협	학 생	총반응률
찬 성	47.8	61.5	58.9	61.3	73.7	64.8
반 대	52.2	38.5	41.1	38.7	26.3	35.2
직업별 참여율	17.4(322)	5.9(109)	16.4(304)	10.0(186)	50.3(932)	100.0(1853)

$\chi^2=79.3$ $df=4$ $P<.001$

<표 16-1>

수산업 종사 찬성 이유

요인별 직업별	매우 어렵다	약간 어렵다	보 통	약간 쉽다	매우 쉽다	직업별참여율
어 민	13.5	11.5	45.5	29.5	0	13.0(156)
지 도 소	13.4	7.5	61.2	16.4	1.5	5.6(67)
교 사	18.8	7.7	61.9	8.3	3.3	15.0(181)
수 협	11.3	4.3	49.6	33.0	1.7	9.6(115)
학 생	14.6	12.4	53.4	16.8	2.8	56.9(685)
요인별 반응률	14.7	10.5	53.7	18.7	2.3	100.0(1204)

$\chi^2=56.8$ $df=16$ $P<.001$

<표 16-2>

수산업 참여 반대 이유

요인별 직업별	수익성이 적어서	과중한 노동	발전가 능성회박	수산업의 인식부족	어업의 천시사상	출세 지장	기 타	직업별 참여율
어민	9.0	21.0	29.9	3.6	16.2	18.6	1.8	25.5(167)
지도소	9.5	9.5	42.9	2.4	9.5	14.3	11.9	6.4(42)
교사	7.1	17.3	28.3	13.4	4.7	22.8	6.3	19.4(127)
수협	12.5	19.4	45.8	6.9	5.6	5.6	4.2	11.0(72)
학생	7.3	41.5	12.5	9.3	12.9	11.7	4.8	37.8(248)
요인별 반응률	8.4	27.1	25.6	7.9	11.1	15.1	4.7	100.0(656)

$\chi^2=112.3$ df=24 P<.001

확보다 미래의 발전 가능성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이 밝혀졌다.

② 家族의 水産業觀

위의 <표 16>에서 家族觀의 水産業 종사를 반대한 사람에게 한하여 “반대”이유를 알아본 결과는 <표 16-2>와 같다.

<표 16-2>에 의하면 여러 가지 반대 이유 중 과중한 노동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총 응답자 656명 중 27.1%가 과중한 노동에 발전 가능성이 회박해서가 25.6%, 출세 지장이 15.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내용에 의하면 水産業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에게 水産業을 부정적인 측면만을 고려하는 태도가 많은 한편 미래의 발전적인 측면을 도외시하는 경향임을 알 수 있다.

(2) 水産業에 대한 職業觀

水産業의 직업적인 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여러분은 水産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설문한 결과는 <표 17>과 같이 나타났다.

<표 17>에 의하면 水産業을 좋은 직업이라고 평가한 비율이 부정적인 측면의 평가보다 높게 나타났다. 총 반응자 1874명 중 41.3%는 水産業을 좋은 직업이라고 하였으며 20%는 좋지 않은 직업이라고 하였다. 단, 가치 중립적인 “그저 그렇다”는 제외하였다.

전체를 종합적으로 해석해 볼 때 <표 16>에서와 마찬가지로 <표 17>에서도 많은 사람이 水産業을 좋은 직업으로 평가하였다.

① 水産業의 否定觀

<표 17>에 나타난 水産業을 좋은 직업이 아니라고 반응한 사람에게 한하여 그 이유를 알아본 결과는 <표

<표 17>

수산업의 직업관

요인별 직업별	매우좋은 직업이다	좋은 직업이다	그저 그렇다	좋은 직업 이 아니다	매우좋은직 업이 아니다	직업별참여율
어민	4.8	25.2	42.4	24.8	2.7	17.6(330)
지도소	3.7	26.6	49.5	18.3	1.8	5.8(109)
교사	4.8	37.6	37.9	17.8	1.9	16.8(314)
수협	4.3	28.2	37.2	26.1	4.3	10.0(188)
학생	10.0	37.9	36.8	13.3	2.0	49.8(933)
요인별 반응률	7.3	34.0	38.7	17.7	2.3	100.0(1874)

$\chi^2=72.4$ df=16 P<.001

<표 17-1>

수산업의 부정관

요인별 직업별	수입이 적어서	해난의 위험	노동이 심해서	천시 사상	기술 부진	출세 지장	직업별참여율 (인원수)
어민	16.0	3.8	19.8	34.0	10.4	16.0	27.4(106)
지도소	9.1	13.6	31.8	31.8	4.5	9.1	5.7(22)
교사	11.5	9.8	23.0	41.0	8.2	6.6	15.8(61)
수협	30.5	8.5	18.6	27.1	10.2	5.1	15.2(59)
학생	12.2	21.6	24.5	28.2	3.6	9.4	35.9(139)
요인별반응률	15.8	12.4	22.5	32.0	7.2	10.1	100.0(387)

$\chi^2=42.9$ df=20 P<.001

17-1>과 같이 나타났다.

<표 17-1>에 의하면 水産業이 좋은 직업이 아니고 응답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水産業의 “賤視思想” 때문이라고 한 반응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총 응답자 387명 중 水産業 賤視思想때문 이 32.0%, 노동이 심해서가 22.5%, 수입이 적어서가 15.8%의 순으로 반응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水産業의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현재의 상황에서만 水産業의 문제점을 평가하고 미래 발전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이 <표 16-2>의 반응에서 나타난 것과 유사하였다.

(3) 水産業從事者의 職業的 滿足度

현재 水産業에 취업한 졸업생들이 자기의 직업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한다고 들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여 직업적 만족도를 알아 본 결과는 <표 18>과 같이 나타났다.

<표 18>에 의하면 水産業從事者의 職業的 滿足度는 “만족한다”와 “불만”이라는 반응률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총 반응자 1858명 중 자기 직업에 만족한다가 27.6%, 불만족이 30.9%로 반응하여 불만족하다는 쪽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단, 보통이라는 반응은 제외하였음)

이와 같은 내용이 시사하는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즉 水産業從事者를 포함하여 자기 직업에 아주 만족한다고 자처하는 사람이 적은 것으로 보아진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직업을 “보통”이라고 반응하는 경향에 따른다고 보아진다.

(4) 水產高等學校 專門敎科의 現場活用度

水高等學校에서 배운 專門敎科目이 水産業 현장에서 어느 정도 활용된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 본 결과는 <표 19>와 같이 나타났다.

<표 19>에 의하면 水高等學校에서 배운 專門敎科目의 現場活用度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1874명의 응답자 가운데 專門敎科目이 현장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가 58.8%, 별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가 13.3%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專門職에 종사하는 사람일 수록 專門敎科目의 現場活用度를 더 높게 평가하였다.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水高等學校에서 배우는 專門敎科의 活用度가 높게 나타난 것 만큼 학교에서도 專門敎科 지도에 적극 힘써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① 專門敎科의 現場活用度가 희박한 이유

<표 19>에서 나타난 水高生들의 專門敎科가 水産業 현장 활동에서 크게 활용되지 않는다고 반응한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알아 본 결과는 <표 19>과 같다.

<표 18>

직업의 만족도

요인별 직업별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이다	약간 불만	매우 불만	직업별참여율
어 민	4.3	17.2	50.8	18.5	9.2	17.5(325)
지 도 소	5.5	11.0	60.6	18.3	4.6	5.9(109)
교 사	5.2	23.9	40.0	23.5	7.4	16.7(310)
수 협	2.6	13.5	42.2	25.0	16.7	10.3(192)
학 생	9.9	23.1	36.4	19.6	11.0	49.6(922)
요인별 반응률	7.1	20.5	41.6	20.6	10.3	100.0(1858)
$\chi^2=77.7$ $df=16$ $P<.001$						

<표 19>

전문 교과목의 현장 활용도

요인별 직업별	매우 많이	약간 활용	보통이다	별로 활용 되지 않음	전혀 활용 되지 않음	직업별참여율
어 민	15.8	42.7	26.1	13.9	1.5	17.6(330)
지 도 소	20.2	51.0	24.0	4.8	0	5.5(104)
교 사	36.7	36.0	20.1	6.8	.3	16.4(308)
수 협	13.7	38.9	23.7	22.6	1.1	10.1(190)
학 생	26.3	27.9	32.4	11.9	1.5	50.3(942)
요인별 반응률	24.5	34.3	27.9	12.1	1.2	100.0(1874)
$\chi^2=117.8$ $df=16$ $P<.001$						

<표 19-1> 전문 교과목의 현장 활용이 희박한 이유

요인별 직업별	낮은 지식	그렇게 전문 성이 필요하 지 않기에	시 설 이 없 어 서	실무경험이 더중요해서	기 타	직업별 참여율
어 민	7.5	15.1	5.7	71.7	0	20.1(53)
지 도 소	0	0	0	80.0	20.0	1.9(5)
교 사	26.7	23.3	13.3	36.7	0	11.4(30)
수 협	13.3	17.4	10.9	56.5	2.2	17.4(46)
학 생	6.2	4.6	14.6	70.8	3.8	49.2(130)
요인별 반응률	9.8	11.0	11.7	64.8	2.7	100.0(264)

$\chi^2=41.0$ $df=16$ $P<.001$

<표 20> 어민의 고충

요인별 성 별	어민의 고충									직업별 참여율
	자금부족	기술부족	수 산 물 가 격 불 안정	설비부족	수산물판 로에대한 정보부족	인력부족	일 티 가 출 어 들 어	풍수해와 공 해	기 타	
어 민	39.8	7.5	26.9	12.0	2.7	5.7	1.8	3.6	0	17.7(334)
지 도 소	52.3	1.8	22.9	5.5	.9	4.6	5.5	2.8	3.7	5.8(109)
교 사	36.2	10.9	19.6	16.7	2.2	1.6	1.6	7.1	4.2	16.6(312)
수 협	30.5	11.1	30.0	4.7	3.2	6.8	3.2	6.8	3.7	10.1(190)
학 생	24.3	16.4	22.7	11.5	6.0	6.4	2.0	9.4	1.2	49.3(937)
요인별 반응률	31.3	12.5	23.7	11.4	4.2	5.4	2.2	7.3	1.9	100.0(1882)

$\chi^2=165.4$ $df=32$ $P<.001$

<표 19-1>에 의하면 水高生들이 배운 專門敎科目이 現場活用に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으뜸되는 것은 이론보다 실무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총 264명의 반응자 중에서 64.8%가 실무 경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론이 크게 活用될 수 없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설이 없기 때문이 11.7%, 그렇게 전문성이 필요 없다가 11.0%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水産業의 專門敎科가 現場活用に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로 原始的의 水産業活動을 더 중요시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5) 水産業從事者の 고충

水産業에 종사하고 있는 漁民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반응은 <표 20>과 같다.

<표 20>에 의하면 水産業에 종사하고 있는 漁民들의 많은 고충 가운데 “資金不足”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1882명의 응답자 가운데 31.3%가 營漁資金 부족이라고 반응하였고, 다음으로는 水産物價格不

安定이 23.7%, 기술 및 설비의 부족이 각각 12.5%, 11.4% 순으로 나타났다.

어민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는 방법은 어촌의 營漁資金을 대폭 지원해서 水産業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弘報活動

현대를 P. R. 시대라고도 한다. 그 이유는 모든 산업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국민의 대다수가 그 산업의 생산성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에게 사회 현상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인 홍보 활동은 각 大衆媒體를 이용하는 방법일 것이다.

그리하여 水産業 역시 많은 발전을 기대하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弘報活動이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상당한 변수가 작용할 것으로 보아 水産業 弘報活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파악하려고 한다.

(1) 水産業에 관한 弘報活動을 大衆媒體를 통하여 자

<표 21> 水産業에 관한 弘報

직업별 \ 요인별	예	아니오	직업별 참여율
어 민	47.7	52.3	17.6(325)
지 도 소	81.7	18.3	5.9(109)
교 사	35.9	64.1	16.5(304)
수 협	54.3	45.7	10.1(186)
학 생	40.0	60.0	49.9(919)
요인별 반응률	44.6	55.4	100.0(1843)

$\chi^2=86.0 \quad df=4 \quad P<.001$

주 접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 본 결과는 <표 21>과 같다.

<표 21>에 의하면 水産業에 관한 弘報가 적다는 반응이 높게 나타났다. 총 반응자 1843명 중 55.4%는 水産業에 관한 弘報를 자주 듣지 못한다는 반응으로 나타났다. 자주 듣는다는 반응은 44.6%로 水産業에 관한 弘報가 비교적 적다는 반응이다.

이와 같은 반응을 더욱 구체적으로 밝혀 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설문하여 그 결과를 알아 보았다.

① 水産業 弘報傳達의 主要媒體

위의 <표 21>에서 水産業弘報를 자주 듣는다고 반

응한 사람에 한해서 어떠한 媒體에 의해서 水産業弘報에 접하는지를 알아 본 결과는 <표 21-1>과 같다.

<표 21-1>에 의하면 水産業에 관한 弘報를 자주 전달하는 主要媒體는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으로 나타났다. 총 응답자 824명 중 T.V나 라디오를 듣는다고 반응한 사람은 41.9%,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서가 40.2%로 나타났다.

직업별로 살펴 볼 때 학생들은 주로 T.V나 라디오 등을 통해서 弘報傳達를 받다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교사나 수협은 신문, 잡지 등을 통해서 전달을 받는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水産業에 관한 弘報를 자주 듣지 못한다고 반응한 사람들에 한해서 그 이유를 알아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② 水産業弘報의 不足 理由

水産業에 관한 弘報를 자주 듣지 못한다고 반응한 이유에 관하여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에 대한 설문 결과는 <표 21-2>와 같다.

<표 21-2>에 의하면 水産業에 관한 弘報不足의 주요 이유는 水産業의 重要性에 관한 認識不足과 水産業에 관한 關心不足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반응자 1027명 중 44.5%가 水産業의 重要性에 관한 認識不足이라

<표 21-1> 홍보 전달 매체

직업별 \ 요인별	TV, 라디오	신문, 잡지	이웃 주변	공 무 원	가족, 친지	기 타	직업별 참여율 (인 원 수)
어 민	36.9	32.5	3.8	21.0	3.2	2.5	19.1(157)
지 도 소	40.0	56.7	0	2.2	0	1.1	10.9(90)
교 사	30.8	60.7	2.8	2.8	0	2.8	13.0(107)
수 협	16.8	71.3	6.9	1.0	3.0	1.0	12.3(101)
학 생	54.5	24.9	7.3	2.4	6.5	4.3	44.8(369)
요인별반응률	41.9	40.2	5.2	5.8	3.9	3.0	100.0(824)

$\chi^2=205.2 \quad df=20 \quad P<.001$

<표 21-2> 홍보 전달 부족 이유

직업별 \ 요인별	수산업에 대한 관심부족	수산업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홍보할 가치가 없기때문	발전전망이 흐리기때문	기 타	직업별참여율
어 민	33.1	51.4	.6	8.0	6.9	17.0(175)
지 도 소	55.0	35.0	0	10.0	0	1.9(20)
교 사	37.6	49.7	0	4.1	8.6	19.2(197)
수 협	31.8	45.9	4.7	10.6	7.1	8.3(85)
학 생	47.1	40.5	1.6	7.8	2.9	53.6(550)
요 인 별 반응률	41.8	44.5	1.4	7.4	5.0	100.0(1027)

$\chi^2=44.6 \quad df=16 \quad P<.001$

고 반응하였으며, 41.8%는 水産業에 관한 關心不足으로 응답하였다.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볼 때 水産業에 관한 弘報가 부족한 이유는 국가나 국민이 水産業에 관한 無關心 내지는 認識不足에 있다고 하였다. 즉 水産業에 관한 발전 전망이 흐리다던가 혹은 弘報할 가치가 없어서 弘報가 부족한 것은 아님을 시사해 주고 있다.

앞으로 水産業의 발전을 위하여는 국가와 국민이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는 많은 弘報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V. 要約 및 結論

가. 要 約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研究推進에 필요한 내용을 설정하고 그것을 質問紙法으로 設問化 하였다.

완성된 設問을 전국 漁村住民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얻어진 자료를 전산으로 통계 처리하고 χ^2 로 有意性檢證을 하였다.

검증된 자료 중 有意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 논문의 목적인 水產高等學校 活性化方案의 수립을 위한 기본 자료로 하였다.

1. 水產高等學校와 進路關係

첫째, 水產高等學校 진학의 障礙要因이 무엇인가를 알아 본 결과 국민의 水産業에 대한 認識不足 때문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水產高等學校 活性化를 위한 첫째 조건이라고 한다면 水産業의 職業的 價値를 높일 수 있는 국민의 인식을 올바르게 회복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水產高等學校의 進學選好度를 높이려면 졸업생들의 就業保障이 뒤따라야 한다는 반응으로 나타났다. 就業保障이란 단순한 노동의 대가로 치루어지는 보장이 아니라 타 직종과 같이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就業保障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

세째, 水產高等學生들의 志望動機를 알아 본 결과 대부분이 水産業의 전망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그들의 자부심을 알아 본 결과 자

부심이 낮은 학생들보다 높다고 반응한 학생들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中學生들의 水高志望을 선호케 하려면 水産業의 인식을 개선하는 방안과 水高卒業生들의 就業保障에 따른 대우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네째, 졸업 후의 希望進路를 알아 본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이(약 60%) 大學進學보다 水産業系統의 職業選擇에 두고 있었다.

水產系大學 志望者들은 同一系大學 진학의 특혜를 희망하였다. 특히 水高進學의 장애 요인 가운데 하나가 大學進學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반응한 내용이 상당수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참작한다면 과거처럼 同一系大學進學의 특혜가 주어진다면 水高進學 選好度는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非水產系 就業이나 大學進學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그 이유를 水產系에 부적합한 적성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학생들만 제외하면 약 70% 이상의 학생들이 水產高等學生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水産業發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2. 水產高等學校의 行政과 教育課程

行政問題란 臨海 및 島嶼地域 中等學校 행정 책임자인 校長과 校監은 水産業專攻者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지역적 여건이나 地域社會의 발전을 위해서 교육의 책임자가 그 지역의 조건과 परि가 생겼을 때 미래 지향적 발전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水高에서 학생들이 이수하고 있는 專攻敎科目的 내용이 학생들의 능력에 맞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와, 또 臨海 및 島嶼地域 中學校의 實業敎科目 선택이 지역적 조건을 고려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教育課程 문제와 敎科目 선택은 바로 행정 책임자의 재량권과 관계가 깊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아 보았다.

첫째, 臨海 및 島嶼地域 中等學校의 行政責任者를 水産業專攻者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설문에서 82.0%라는 높은 찬성률을 나타내었다.

둘째, 臨海 및 島嶼 地域中學校의 實業敎科目 선택을 水産業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에 대한 반응에서 약 71.0%가 찬성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水產高等學

校의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추진해야 할 과제는 도서 및 임해지역의 中等學校 행정 책임자를 水産業專攻者로 할 것과, 水高에 대한 중학생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中學校 實業敎科目 선택을 水産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세째, 水高生들이 배우는 專門敎科目에 대한 難解度를 학생·교사의 반응을 비교해 본 결과 학생의 약 79%, 교사의 약 83.0%가 어렵다고 하였다. 난해한 이유 중의 가장 큰 것은 어려운 낱말들이 많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이 나타날 수 있는 요인은 주로 中學校에서 水産業을 배우지 못했던 관계로 인해서 오는 장애라고 풀이된다.

네째, 水高生들이 현재 배우고 있는 人文敎科目 역시 어렵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현재 水高生들에게는 專門敎科던 人文敎科던 그들의 능력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반응이므로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채교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專門敎科目의 적정성 여부와 新設敎科目을 알아 본 결과 대부분 적절하다고 반응하였다. 그러나 약 33%는 현재의 과목 수가 많다고 하였다. 굳이 새로운 과목을 더 신설하려면 어떤 과목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반응에는 첨단 기술의 電算科目을 희망하였다.

3. 水産業에 대한 職業觀

첫째, 水産業의 직업적 가치를 漁民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알아 본 결과 水産業의 職業의 價値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으며, 그 이유는 水産業의 전망과 어촌 발전을 위해서라고 하였다.

둘째, 水産業의 職業의 價値를 낮게 평가하는 漁民들이 다수 있었는데 그 이유를 알아본 결과 대부분이 과중한 노동력과 발전 가능성의 회박성에 두고 있었다.

水産業을 肯定的으로 평가하는 漁民들과 否定的으로 보는 漁民들과는 그 견해를 정반대 쪽에서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水産業을 否定的인 시각에서 평가하는 漁民은 소수에 불과하였다.

세째, 水産業從事者들에 대한 職業의 滿足度를 알아 본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이 보통이라고 반응하였으며, 만족하다고 응답한 비율과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비슷하였다.

위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아직도 水産業 전체가 기대화 되지 못하고 육체적 노동이 과중한 데서 오는 불만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네째, 水高에서 배운 專門敎科目의 현장 활용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專門敎科目의 학습 내용이 현장 활용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응하였는데, 그 이유는 전문 기술이나 지식보다 실무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이라 반응하였다.

마지막으로 水産業 從事者가 겪고 있는 가장 큰 고충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 본 결과 자금 부족과 수산물 가격 불안정을 들고 있었다.

이와 같은 반응이 나올 수 있는 요인은 水産業에 대한 국민들의 認識不足과 政策的 配려가 약한 데서 오는 것이 크다고 본다.

4. 水産業과 弘報活動

水産業의 發展과 漁村住民의 생활 안정 및 복지를 위해서 국가나 사회가 弘報活動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종 매체를 통해서 水産業에 대한 홍보를 자주 접하느냐에 대한 반응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를 두가지 측면에서 규명하였다. 하나는 자주 접한다고 반응한 집단과 그와 반대로 자주 접하지 못한다고 반응한 집단에게서 傳達媒體의 유형과 이유를 밝혔다.

둘째, 弘報傳達 媒體를 알아 본 결과 주로 電波媒體와 印刷媒體인 것으로 드러났다.

세째, 홍보를 접하지 못했다고 하는 집단에게 그 이유를 알아 본 결과, 주로 水産業에 관한 관심 부족과 水産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때문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나. 結 論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인 水產高等學校의 活性化方案의 도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水産業에 대한 職業의 價値를 범 국민적 차원에서 국민 의식을 회복하는 것이다.

둘째, 臨海 및 島嶼地域 중등학교 행정 책임자는 水産業分野 전공자로 임명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세째, 臨海 및 島嶼地域 중학교의 實業敎科目은 水産業으로 할 것과, 현행 水高生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목

의 수준을 水高生들의 수준에 맞게 개편하여야 할 것이다.

네째, 水產業의 발전에 대한 부정적 요인을 가려서 개선 방안을 政策的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漁村住民의 生業活動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 지원과 첨단 기술의 도입 등을 서둘러 水產業을 새로운 면모로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여섯째, 水產業의 발전을 위해서 국가와 사회는 적극적인 弘報活動에 힘써야 하며, 그러한 홍보를 통해서 전 국민이 水產業의 중요성을 재인식케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水產高等學校의 活性化方案 수립은 교육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水產業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를 밝혀내어 그것을 시정하고 긍정적인 요인을 찾아 적극 지원하는 데서 이 목적은 달성 되리라 본다.

본 연구가 水產系高等學校 活性化方案 수립에 필요한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앞으로도 이 방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임을 밝혀 둔다.

文 獻

- 1) 고관서, 어민후계자 육성, 농어민후계자 육성 세미나 보고서, 한국 농업교육학회, 1981. 어민후계자 육성사업, 농업개발연구소, 1981.
- 2) 공용식, 영어후계 육성 총론, 한국수산경영학회, 수산경영론집 15-1, 1984.
- 3) 김동일, "영농후계자 육성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0.
- 4) 김동희 외 7인, 전환기의 한국농업 경제발전과 농업문제, 한국경제연구원, 1979.
- 5) 김동희, 농어민 후계자군의 육성을 위한 장단기대책, 한국 농어촌 청소년 교육협회 제6차 세미나 보고서, 한국 농어촌.
- 6) 김종두, 바다의 목장화, 1979.
- 7) 농수산부,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 현황, 1982.
- 8) 박진환, 농촌공업화와 농어민 후계자의 육성, 한국 농어촌 청소년 교육협회 제6차 세미나 보고서, 한국 농어촌 청소년 교육협회, 1987.
- 9) 이강우, 우리나라 어촌의 복지에 관한 연구, 한국수산 경영학회, 수산 경영론집, 16-2, 1985.
- 10) 이병기, 원양어업의 새로운 전개방향, 21세기의 수산자원 개발과 문제점, 1987년도 추계 심포지움, 한국수산학회, 한국어업기술학회, 한국수산진흥회, 1987.
- 11) 이순진, "농촌여성의 사회참여와 그 관련변수에 관한 연구" 1977.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2) 이현우, 이경준, 수산고등학생의 의식구조 분석, 부산수산대 논문집 40, 1988.
- 13) 이현우, 이경준, 후계어민 육성을 위한 어촌지역 중등학교와 사회교육의 연계방안, 수산경영론집, 19-2, 1988.
- 14) 최정윤, 제2단계 어민 후계자 육성사업에 관한 발전방향, 한국 농어촌 청소년 교육협회 제6차 세미나 보고서, 1987.
- 15) _____,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 과제와 방향, 농협중앙회, 1986.
- 16) _____,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 농수산부, 1986.
- 17) 국립수산기술훈련소, 어민후계자 종합보고서, 1986.
- 18) 국립수산진흥원, 어민후계자 사업표준설계, 1981.
- 19) 농수산부,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 현황, 1982.
- 20) 농수산부,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 편람, 1982.
- 21) 농수산부, 농어민후계자 사업실 요령, 1985.
- 22) 농촌진흥청, 농어민후계자 육성 지침(안), 1980.
- 23) 수산연감, 사단법인 한국수산진흥회, 1987.
- 24) 수산청, 1986, 어민후계자 육성사업, 1986.
- 25) 한국통계연감, 경제기획원 조사통계, 1985.
- 26) 한국경제연감, 전국경제인 연합회, 1986.
- 27) Barrage Adbelmegid M., "The Occupational Sturcture of the Labour Porce-Pattern and Trends in selected Countries". Production Studies, 1964.
- 28) Elisabeth Croll, Woman in rural development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Geneva, ILD Publications, 1979.
- 29) FAO, Strategy 502 fisheries Management and development. FAO Fome, p. 26.
- 30) International Labour Office, Rural Development and Woman in Asia, Geneva, ILD Publications, 1982.
- 31) Wagner, F.H., Ecosystem concepts in fish and game management. In the Ecosystem Concept in Natural Resource Management, Van Dyne,

- C.M. Academic Press, New York and London, pp. 259-307, 1969. 東京：産業文化協會
- 32) 吉田寛 昭和 55年 日本農業の課題と複合経営, 東京：山漁文化協會 34) 平決豊, 日本の漁業, 日本放送出版協會 99, pp. 239-243
- 33) 官貝誠一編 昭和 39年 農業の近代化 青年と教育, 35) 大島泰雄, つくる漁業, 資源協會 99, pp. 49-64.

A Study on the Analysis of the Fishing Villages Peoples' Demand for a Creative Plan for the Fisheries High Schools

Kyung-June LEE

(National Fisheries University of Pusan)

The study is an analysis of the responses to a questionnaire by members of various fishing communities in Korea regarding their opinion about the vocational value of the fishing industry and factors which are acting as obstacles to entrance into the Fisheries High Schools, etc. Subjects were 2,000: fishermen, members of the fishermen's cooperative society, and teachers and students of the Fisheries High Schools.

Results indicated as follows:

- (a) It would be desirable to have fisheries courses incorporated in middle schools on islands and in fishing villages to improve enthusiasm of middle school students for entrance into Fisheries High Schools. (b) It is desirable that the principal or the administrator of middle schools in fishing villages and on islands should be a person who has majored in fisheries field, and so would support fisheries courses in the middle schools. (c) The level of peoples' appreciation of the fishing industry should be enhanced.